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중덕 감리사님을 모시고 구역회를 합니다. 구역회원들은 보고서를 제출해주시고,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위임장에 서명해주시시오.

구역회원이 아닌 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동호회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사권을 위한 좋은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은 일본기행을 위한 일본사 특강(1) 시간입니다. 박범희 집사님께서 강의하십니다.

유초등부 겨울성경학교가 오늘부터 내일(21일)까지 용인에 있는 <심소재>에서 열립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25일(금)부터 26일까지 양평에 있는 <개척자 샘터>에서 열립니다.

오는 수요일(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모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집회 후에 선교회장들과 인도자들의 신년모임이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하루에 3장 이상씩 성경을 읽고, 30분 이상 묵상의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새교우 소개>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자비하신 하나님, 찬바람을 피하기 위해 몸을 곱송그리고 걷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약함을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못할 일이라곤 하나도 없는 듯 처신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있습니다. 사랑하고 보듬어 안으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우리는 미움과 다툼의 질곡에 갇힌 채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성의 눈을 멀게 만드는 탐욕과 자만심과 감각적인 쾌락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이라 해도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딸로 인정할 수 있는 겸허함을 허락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현금:

김기석 김희우 김재흥 최희영 김춘려 윤정덕 구성실 김철수 유영남
 조병무 송양진 한완식 임정자 윤석철 장혜숙 방문성 박해경 김지호
 배근수 김금순 김용진 박효선 김정길 최숙화 김정섭 김준호 곽혜자
 김신옥 김용길 최영혜 김윤수 박상호 김지은 김필순 김혜권 박병구
 박애순 박영희 박창운 허정윤 방 민 백요현 배삼순 권호천 신윤정
 서원금 윤미경 윤영원 이선희 윤수진 이봉옥 이성운 이예정 이정규
 이인섭 이한림 김명희 전월수 정완수 김재광 조관행 홍선희 조병주
 조항범 오현정 최종미 최종원 허호범 황지현 김순복 권미숙 구명자

월정현금:

고속이 구자훈 권혁순 박해경 권혁신 김남중 오복순 김남홍 김대근
 김명순 김미순 김영순 김영한 이희균 김윤정 김성자 김종문 김종철
 고영애 김현영 정원석 김병희 최문희 김정애 김지현 김지은 문금석
 문홍일 박석희 조항미 박옥순 박준희 이기분 배부례 송의섭 송임희
 안길상 왕수명 왕성환 강순배 유중희 이재문 유형준 김현미 윤성중
 김윤정 윤주원 최윤선 이갑재 이광섭 김수연 이경남 이동천 이병철
 김현진 이봉배 이성범 이민범 이정은 이유선 방극숙 이인웅 전영자
 전영규 김경수 정두리 조순덕 최철수 곽권희 하정석 이명희 하현철
 최성애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이소순

감사현금:

방문성 박해경 김용진 박효선 김용길 최영혜 왕성환 강순배 오정숙
 김혜선 하재두 권미숙 이경남 김 극 최철수 곽권희 유영남 구자훈
 최문희 무명4

생일감사현금: 최희영

100주년 기념현금 :

장영숙 윤석철 장혜숙 김정섭 임승동 백혜숙 무명2
 (100주년 현금 누계 : 158,590,000원)

나는 알고 또한 믿고 있다

이 밀도 끝도 없는
욕망과 갈증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나는 알고 있다.

이 밀도 끝도 없는
오뇌와 고통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나는 알고 있다.

이 밀도 끝도 없는
불안과 허망의 잔을
피할 수 없음을/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믿고 있다.

이 욕망과 고통과 허망 속에
인간 구원의 신령한 손길이
감추어져 있음을,

그리고 내가 그 어느 날
그 꿈의 동산 속에 들어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나는 또한 믿고 있다.(구상)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분노를 참으면 덕이 자랍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늘의 길이 열립니다. 인내와 기도를 통해 유혹을 피하십시오. 늘 주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아멘. 아무리 힘써 보아도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내리면 흙이 부드러워지듯이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맡기신 일들을 성심껏 수행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구역회/이중덕 감리사	성서로 배우는 평화 / 김기석 목사
동호회	기도 : 박범희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장영숙 전도사 김기석 목사	권미정 집사 조병무 장로	인도자 박혜경 권사

1월	영접위원	조병무 김정길 고광송 강순배 최숙화 서정순
	헌금위원	김철수 강순배(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우정의 본질로 인한 갈등

영적 거리를 유지하는 일은 내가 어제까지 이해하고 있던 것보다 한층 더 개개인과 깊이 관계되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진정한 우정을 이해하고 생활화하는 일은 중요하기 이를 데 없다. 조너스와 나는 우리의 우정을 정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처음에는 둘 다 간접적으로만 언급했으나, 지난 2, 3 일간은 우리의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다. 나로서는 배신당하거나 속았다는 기분, 인정받고 싶어하는 동시에 여백을 필요로 하는 욕구, 불안과 불신, 두려움과 사랑에 대해서 토로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이런 느낌들 속으로 파고들면서 나는 진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오로지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친구에게서 기대하고 있다는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배신감을 너무 쉽게 느낀다. 친구가 찾아오지 않거나, 편지가 오지 않거나, 초대가 오지 않거나 하면,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자존심 상하는 암울한 기분에 젖어들면서 우울해진다. 일단 우울해지면 무고한 몸짓들마저도 스스로 자초한 어둠의 증거들로 해석하려 들고, 그래서 점점 더 그 어둠에서 빠져 나오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스스로 초래한 이 옳지 못한 배신감의 순환고리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그것에 관해 조너스와 솔직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

조너스와 이야기하는 사이에 이루어진 일은 두 가지였다. 첫째로, 조너스는 나로 하여금 내 중심에서 빠져 나오도록 강요했다. 그에게도 생활이 있고, 갈등이 있고, 충족되지 못한 요구와 결함들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때, 나는 깊은 연민과 함께 그를 감싸고 위로하고 싶은 욕구를 느꼈다. 그러면서 그가 나에게 충분히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문제로 그를 비판하고 싶은 기분이 없어졌다. 사람들은 흔히, 온갖 관심이 자기에게로 쏠려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상대방을 그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줄 알게 되면, 자기에게서 한 발자국 물러서서 진정한 우정이란 둘이서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닫기

에 이른다.

둘째로, 우정은 상대방이 그리스도가 아닌 까닭에 언제나 혼연하게 그를 용서하면서 그리스도께 참된 구심점이 되어달라고 부탁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실감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관계를 중재하지 않으실 때, 그 관계는 자칫하면 요구하고 조종하고 억누르고 수많은 형태의 거부가 난무하는 각축장이 되어버린다. 중재가 없는 우정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한쪽이 다른 쪽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함으로써 상대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여백을 제공하지 않기 일쑤다. 우정은 가까움과 애정과 지원과 상호격려를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성장을 위한 여백과 거리, 서로 다를 수 있는 자유, 고독 역시 필요로 한다. 따라서 우리가 우정의 양쪽 단면들을 두루 부양하자면, 어떤 인간관계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지속력 있는 인정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너스와 나는 우리 우정의 참된 본질을 놓고 씨름하는 과정에서 바울로가 로마인들에게 써보낸 글을 읽어보았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곧 (하느님) 결정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만사가 선하게 이루어져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그분은 당신이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로마 8:28-30)

우리가 진실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때, 우리의 상호관계는 충동적인 성격을 탈피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비단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뿐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이미 알고 있는 사랑에 동참시키기 위해서도 그들에게 접근하게 된다. 그러기에 참된 우정은 보다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서로에게 이 진리를 부단히 재확인시키는 일은 힘들지만 노력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끊임없는 상호용서와 하느님의 사랑을 향한 끊임없는 자기개방은 우리로 하여금 우정 안에서 함께 성장하게 하는 수련인 것이다.

--헨리 뉴엔, <<새벽으로 가는 길>> 중에서